

시작하며

- 코로나19의 확산과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졌으며 우리 경제도 생산과 수출의 차질로 인해 실물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음
- 이러한 사회·경제적 변화로 인해 이커머스는 양적 성장과 질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동시에 이커머스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소비 트렌드도 등장함
-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고, 이에 대한 산업계와 전문가들의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임
- 경기침체와 고물가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서, 이커머스의 진화가 소비자들의 후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, 이커머스의 진화가 우리 경제에 주는 의의가 무엇인지 논의하기로 함

위축된 소비자 심리

- 코로나 19의 확산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 제약 등으로 국가 경제 전반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짐
 - 코로나 19 신규확진자가 증가한 2020년 2월부터 4월 말까지 소비자동향지수가 100 이하*로 하락(삼일회계법인, 2020)
 - 2020년의 체감물가상승률(0.66%)은 공식 소비자물가상승률(0.54%)보다 높았고, 연쇄지수상승률**(0.45%)과 비교해도 0.18%p 높았음(한국금융연구원, 2021)
 - * 소비자동향지수(CSI:Consumer Survey Index)는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소비지출전망 등을 설문조사하여 그 결과를 지수화한 통계자료로 지수가 100보다 클 경우 긍정적 응답자가 많음을, 100보다 낮을 경우 그 반대를 의미함
 - ** 연쇄지수는 성장률, 산업생산 등 각종 거시경제지표들을 만들 때 기준연도를 정하지 않고 직전연도의 생산액의 가중치를 산정, 이를 바로 다음 연도 지수계산에 반영해 산출하는 지수로, 제품 가격변동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전자·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비중이 높을 때 실물경기 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
- 2020년부터 소비자 체감 물가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 같았으나,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시작되었고 같은 해 5월 미국 연준의 빅스텝 단행이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나라의 소비자 동향지수도 빠르게 하락함(통계청, 2023)
 - 미국은 2022년 5월 4일 기준금리를 0.75~1%로 0.5%포인트 인상하는 ‘빅스텝’을 단행하였으며, 세계은행(World Bank)은 2022년 6월 세계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예고함(한국인터넷기업협회, 2022)